

충남도의회, 공주 새마을운동 기반 마을공동체 모델 확산 논의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 기반의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4일 공주시 행정누리 대강당에서 '공주시 새마을운동 사례로 본 마을공동체운동 확산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숙현 전 공주시 새마을회 지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숙현 전 지회장은 '공주형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 주민 여량 강회를 통해 행정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주형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계승과 주민 주도 공동체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공주형 마을공동체운동이 단순 사업이 아닌 '운동'에 접근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지도자 인식 전환과 새마을정신 교육,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가 공동체 확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소규모 실천사업 ▲공동체 리더 양성 ▲활동 거점 활성화 ▲단계적 교육·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공동체가 심화된 마을에서도 부녀회·노인회·이장단이 함께 환경정비와 돌봄,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해 온 과정이 소개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과 실천이 결합될 때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공동체 지속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기영 의원은 "공주시의 새마을운동 기반 마을공동체는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장해 온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주형 마을공동체 모델을 정립하고, 충남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김진경 의장, 경기지역 약5당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 나눠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약

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芝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약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약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견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초의회를 두텁게 받아들이겠다"며 "전달된 내용은 향후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성남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속했다.

안광립 부의장은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좀처럼 살피고,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족 명절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며 "장애인인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희망찬 새해를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망한다"며 "장애인의 자립을 돋우고 권리와 보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구리시의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간담회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월 4일 17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연합회장 고기환)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아파트 저층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해소를 위한 인장1로 방음벽에 대한 조치,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한 주차 편의 개선,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부지 인근 도로 경계석 및 완충지대에 디자인

펜스 설치 건의, 동구릉역 4번 출구 버스 승강장 스마트쉘터 설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무성 있는 대책 마련 등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고기환 연합회장은 "구리시가 오래 된 아파트가 많아 수리와 환경개선 수요가 많다보니 구야연에서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잘 반영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민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은 구리시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견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할 경우 심각한 보안 및 운영 안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하철은 도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운영 데이터 유출 및 기술적 보안 위협도 아기할 수 있다는 점, ▲중국산 철도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로 인해 신호 및 통신 체계 등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기술 종속성이나 부품 조달 불확실성이 발생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최근 논란되는 국내 건설 기준과 중국의 시공 방식 차이로 인한 기술 표준 및 품질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철도 사업인 만큼 그 피해는 클 것이라는 우려, ▲건설 후 운영 단계에서 투입된 중국 측이 수익성을 이유로 높은 운임 인상을 요구하거나 운영 기술 유출 등을 둘러싼 운영적 갈등이 서울시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노란봉 투법 시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 사업 주체에 쟁의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언어의 장벽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큰 부정적 측면으로 도출됐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더욱 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특히 서부선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정부와 서울시가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부담형 민간투자사업방식(OtR)이므로 중국 자본이 투입된다면 우선 계약 구조상 서울시의 관리 및 감독하게 됨이 되는데, 이를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해석된다.

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해당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해석과 전망도 분명 존재하였는데, 이를테면 ▲건설출자자의 이탈로 난항을 겪던 서부선 사업에 대규모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 큰 재원 조달로 당면숙제가 바로 해결된다는 점, ▲당면숙제 해결로 즉각적인 실시협약 가능 및 착공 역시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중국 본토 대륙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철도망 건설 경험 많은 중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앞선 경험과 기술력으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중국 대규모 자본 특성상 공사비 경쟁력이 높을 수 있어 최근 치솟은 자재비와 금리로 인한 공사비 현실화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문성호 시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출한 부정적 측면 및 우려되는 사안으로 ▲서부선은 은평구에서 시작해 서대문구를 지나 관악구까지 도달하는 도시철도망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이기에 중국 자본이 운영(O&M)과 시설 관리 권한 등에 접근

이장성 기자

붉은 말의 기운이 흐르는 2026년!

출렁다리로

여주의 매력을 있다

